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수험 번호, 답 등을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연에서 설명하지 않은 동작은? [1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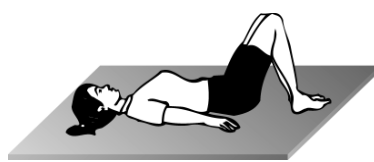
②



③



④



⑤



2. (물음) 독서에 대한 스승의 생각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 ① 책은 빨리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것이 좋다.
- ② 어떤 책을 즐겁게 읽으려면 그 책의 내용을 대강 알고 있어야 한다.
- ③ 독서를 하는 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독서를 하지 않는다.
- ④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일백 번 되풀이하여 읽으면 그 참 뜻을 스스로 깨쳐 알게 된다.
- ⑤ 천하를 준다 해도 독서의 즐거움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니 독서는 평생을 두고 할 만한 좋은 일이다.

3. (물음) 이 장면에 이어질 수업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도깨비는 어떤 존재인가?
- ② 도깨비는 어떤 재주가 있나?
- ③ 도깨비란 말은 어디에서 왔나?
- ④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 ⑤ 도깨비는 어떤 신체적 특징이 있는가?

4. (물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는 역사성이 있다.
- ②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 ③ 언어는 사물을 기호로 추상화한다.
- ④ 언어는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 ⑤ 언어는 규범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이 대담의 내용으로 볼 때,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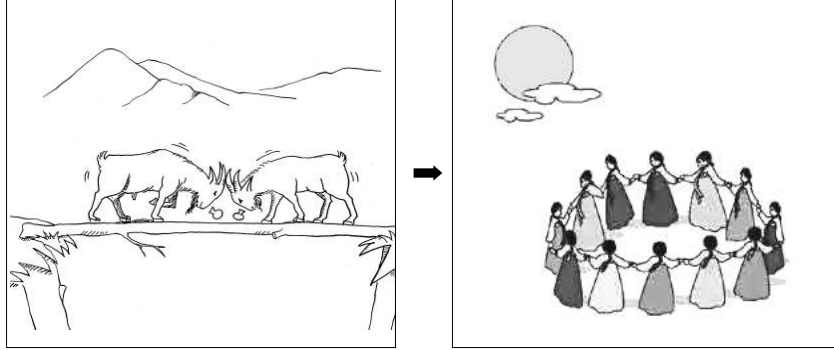
- ① 작품은 작가의 정신과 의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 ② 훌륭한 작품은 작가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탄생된다.
- ③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의도대로 독자를 설득하려 한다.
- ④ 작품은 온갖 시련과 역경에 굴하지 않은 작가혼의 결정체이다.
- ⑤ 작품은 시대 상황에 따른 소산물로 작가가 바라보는 사회상을 반영한다.

6. (물음) 두 사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평가는 작가에게 시종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대담자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심화된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비평가는 작품의 표현 구조와 의미 구조를 밝히며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작품 탄생의 시대적 배경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진행자는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계의 일부 부정적인 경향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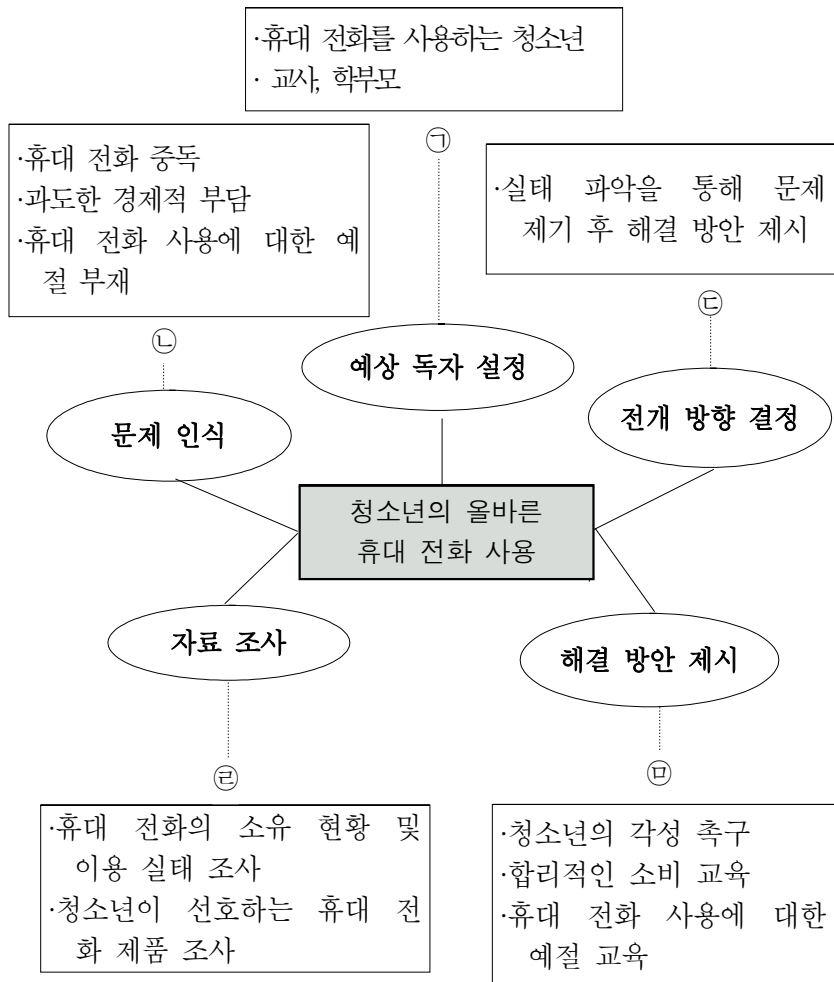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공익 광고 문안을 작성하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평소의 운동은 건강의 지름길!
- ② 갈등과 반목에서 대화합의 자세로!
- ③ 농촌 경제 희생은 한마음 한뜻으로!
- ④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내는 전통 문화!
- ⑤ 자연과의 공존 속에 조화를 이루는 우리 사회!

8. '청소년의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해 글쓰기 계획을 세워 보았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자료 1>, <자료 2>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여자 1인당 출생아 수

<자료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 미혼 남성 >

< 미혼 여성 >

- ① 자녀 교육비 지원
- ② 직장 내 예절 교육 강화
- ③ 여성의 출산 휴가제 확대
- ④ 자녀 양육의 보람과 가치 홍보
- ⑤ 여성들의 안정적 직업 활동을 위한 탁아 시설 확충

10. <보기>의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제문 : 문화의 시대

I. 서론 :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우리의 문화 예술

II. 본론

1. 전통 예술과 대중 예술의 활발한 해외 활동

가. 한국인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질

나. 전통 예술의 해외 공연

2. 문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국가 위상의 제고

나.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무역수지 증대

다. 문화 산업의 활성화로 고용 창출

3. [㉠]

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창조

나.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독창적 요소 발굴

다. 외국과의 문화 교류로 우리 문화의 경쟁력 고양

III. 결론 :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 촉구

- ① 주제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의 문화 경쟁력을 기르자.'로 고친다.
- ② 'II-1-가'는 논리적 흐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③ 'II-1'의 하위 항목으로 '우리 대중 예술의 해외 공연'을 보충한다.
- ④ ㉠에는 하위 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넣는다.
- ⑤ 'II-3-가'는 'II-2'로 옮겨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11.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바른 것은? [1점]

- ① 너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쓴다.
- ② 회원을 더 늘일 계획은 세웠나?
- ③ 요즘 농촌 들녘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야.
- ④ 그는 활을 쏘아 과녁을 정통으로 맞췄다.
- ⑤ 우리 사이는 남다르게 두꺼운 정이 있잖아!

12.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우리는 오늘 많은 운동과 업무를 처리했다.
- ② 이곳에서는 반드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면서 산다.
- ④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 ⑤ 그 강연의 핵심은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3. <보기>는 제품 설명서의 일부이다. 고쳐 쓰려고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방학 ㉠기간 동안의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 제품은 각종 비타민, 칼슘 등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제>
- 12시간이 지나면 보온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표시 및 경보음이 울립니다. <○○전기 밥솥>
- 이 기구는 ㉢근육 강화에 있어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기구>
- 신호음을 그치게 하려면 덮개를 열고 ㉣아무 단추를 누르세요. <○○휴대 전화>
- 통풍이 ㉤잘되도록 벽이나 물건에서 10~2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세요. <○○냉장고>

- ① ㉠은 '동안'과 의미가 중복되니 삭제해야겠어.
- ② ㉡은 '및'으로 연결되는 단어들 간의 표현이 어색해. '표시가 나타나고 경보음이 울립니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의 '-에 있어'는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니 '근육 강화에'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④ ㉣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조사 '-(이)나'를 써서 '아무 단추나'로 고쳐야 해.
- ⑤ ㉤은 문장의 의미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도록 '잘될수록'으로 고쳐야 해.

14. '인생에서 열정(熱情)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은? [1점]

— <보 기> —

-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한다.
- 열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 ① 인생은 소금과 같이 쓰지만, 때로는 사탕처럼 감미롭기도 하다. 관점에 따라 인생은 소금도 되고 사탕도 될 수 있으니 삶을 살아가는 데 낙관적인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 ② 인생은 어둠과 밝음, 즉 고통과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교차되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다가올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열정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 ③ 인생은 얼음과 같은 이성뿐만 아니라 용광로와 같은 열정도 필요하다. 열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온 힘의 원천이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함선의 기관이다.
- ④ 인생은 고요한 바다와도 같지만, 때로는 험한 준령과도 같다. 거친 바다를 향해할 때나 험한 고봉준령을 넘기 위해서 강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 ⑤ 인생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나무와 같다. 하늘 향해 펼쳐진 잎들처럼 꿈을 꾸는가 하면, 큰 꿈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서 있기

도 하고, 세찬 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한 의지로 견뎌 내기도 한다.

[15~19]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러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

(나)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行人)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 신동엽, 「산에 언덕에」 -

(다) 관(棺)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容納)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좌르르 하직(下直)했다.
 그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兄)님!
 불렀다.
 오오냐. 나는 전신(全身)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특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 박목월, 「하관(下棺)」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색채어를 활용한 감각적 표현이 돋보인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③ 비극적 현실에 대한 초월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④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의 소망이 자연물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16. <보기>의 '나'가 (가)의 시적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 ① 죽고 사는 것은 신의 뜻입니다. 신앙을 통해 이겨 보시지요.
- ②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 ③ 슬퍼한다고 죽은 자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에 두시지요.
- ④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시지요.
- ⑤ 삶과 죽음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에서 즐겁게 살지 못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17. (나)의 **꽃**과 시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김소월, 「산유화(山有花)」-
- ② 논개(論介)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同時)에 주는 사랑 하는 논개여. /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향기는 썩지 않는다.
- 한용운,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廟)에」-
- ③ **꽃**이 지기로서니 / 바람을 닦하랴. // 주렴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인 산이 다가서다.
- 조지훈, 「낙화(落花)」-
- ④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 해마다 봄바람이 남(南)으로 오네. //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 김동환, 「산 너머 남촌(南村)에는」-

18. (나)를 <보기>의 밑줄 친 방법에 따라 감상한 것은? [1점]

<보 기>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표현된 그 자체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감상하는 것을 내재적 감상이라 한다. 반면에 창작 당시의 현실, 또는 오늘의 현실, 작가, 독자 등 작품의 외부적인 요소를 끌어들이어 이를 통해 작품 내용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감상하는 것을 외재적 감상이라 한다.

-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
- ② ‘행인’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군.
- ③ 서술어에 사용된 ‘-지어이’라는 어미는 소박함과 함께 여운을 느끼게 하는군.
- ④ ‘화사한’, ‘맑은’ 등의 수식어는 ‘그’에 대한 시적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는군.
- ⑤ 시적 대상을 ‘울고 간 영혼’으로 표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군.

19. (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은?

땅속 깊이 관이 내려지고 ①나는 슬픈 마음으로 옷자락에 흠을 받아 뿌렸지. 좌르르……. 흠이 네 관 위로 떨어질 때의 내 심정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구나.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던데……. 아우야! 나도 너를 내 가슴 속에 깊이 묻었다.

간절함때문인지 ②너를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어. ③꿈속에서 너는 나를 다정스레 불렀지만, 나는 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더구나. 나도 너를 간절히 불렀지만 너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더구나. 이승과 저승의 거리가 이렇게 멀 줄은 정말 몰랐다.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이승 세계, ④이 세상 어디에도 너는 없구나. 아우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⑤너는 어질고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말이다.

사랑한다. 아우야…….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 교육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에 대한 백성들의 집념과 열의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양반은 말할 것도 없고 평.천민들까지도 교육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졌으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양반과 평.천민들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기금을 마련하여 학계와 서당계 등을 조직하고 훈장을 초빙하여 자체들을 교육시킨 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이러한 열의와 집념의 산물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열과 집념으로 말미암아 양반은 말할 것도 없고 평.천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읽고 쓸 줄 알았으며, 민원과 관련하여 관에 소장(訴狀)*을 제출하거나 혹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직접 문서를 작성할 정도로 문자 해독력이 크게 높아졌다. 한국의 조선 시대와 중국의 명.청 시대 및 일본의 막부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문자 해독력을 비교해 본다면 조선의 백성이 중국이나 일본의 백성보다 월등히 앞섰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 시대의 교육 목표는 백성들에게 삼강 오륜 등의 예의를 ㉡가르쳐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곧 백성을 기르는 일이요, 백성을 기르는 일은 곧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었으며,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곧 백성에게 예의를 알게 하는 일이었다.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수령을 ‘목민관’이라고 부른 것이나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의 직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교화하는

일이며 교화는 예속, 즉 예의를 ㉔가르치고 권장하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위정자들은 백성들에게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한 예의를 ㉔가르치면 백성들은 자연히 왕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돌보게 되어 사회는 안정되고 정치는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왕을 위시한 집권자들이 교육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교육의 목표가 이처럼 백성에게 오로지 예의를 가르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우선 무예 교육에 너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과 응시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기관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두 차례의 외침을 겪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군사력이 거의 증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개항기에 열강의 침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각종 기술 교육을 경시하고 이에 종사하는 관료들을 천대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 내내 이렇다 할 기술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조선 말기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의를 중시했던 조선 시대의 유교적 교육관으로 인하여 빚어진 어두운 측면이다.

* 소장(訴狀)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관아에 내는 문서

20.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조선 시대의 교육 과정
- ② 조선 시대의 교육 수준
- ③ 조선 시대의 교육열과 교육관
- ④ 조선 시대의 교육 기관 변천사
- ⑤ 조선 시대의 교육 제도와 교육자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선의 위정자들은 충효를 중요한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
- ② 중국이나 일본의 백성보다 조선의 백성이 문자 해독력이 높았다.
- ③ 조선 시대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층과 천민층도 교육열이 높았다.
- ④ 조선 시대에 기술 교육을 경시하던 풍조는 근대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⑤ 조선은 두 차례의 외침을 겪은 후, 무술 교육에 힘쓰는 등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22. ㉑~㉔ 중, 행위 주체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점]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23. ㉖와 <보기>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3점]

— <보 기> —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고운 비단으로 된 옷이야 조금이라도 헤어지면 세상에서 불품없는 것이 되어 버리지만, 텅텅하고 값싼 옷감으로 된 옷은 약간 헤어진다 해도 불품이 없어지지 않는다. 한 벌의 옷을 만들 때 앞으로 계속 오래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며, 곱고 아름답게만 만들어 빨리 헤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옷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곱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지 않게 되고, 투박하고 질긴 것을 고르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다.

- 허균, 「유재론(遺才論)」 -

- ① 실용성 ② 보수성 ③ 도덕성
- ④ 심미성 ⑤ 주체성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광문은 걸인이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움막에는 광문과 병이 든 거지 아이만 남고 다른 거지들은 모두 구걸하러 나가고 없었다. 거지 아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 광문이 불쌍히 여겨 밥을 얻으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죽고 말았다. 걸인들이 돌아와 광문이 아이를 죽였다고 하면서 광문을 내쫓았다. 광문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마을 집에 숨어들었다가 집주인에게 들켜 도둑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진한 광문의 말을 들은 주인은 광문을 놓아 주었다.

광문은 사례를 하고 거적때기를 하나 얻어 가지고 가 버렸다. 집주인은 괴상하게 여겨 그 뒤를 따라가 보았다.

여러 거지들이 한 시체를 끌어 수표교까지 오더니 그 다리 밑에다 버리는 것이었다. 광문은 다리 밑에 숨었다가 거적때기로 둘둘 싸서 등에다 걸머지고 서대문 밖 공동묘지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무엇인가 증얼거렸다. 이것을 숨어서 보고 있던 집주인은 달려들어 광문의 손을 잡았다. 광문은 이때에 전후 사정을 남김없이 다 말했다.

이것을 듣고 감탄한 나머지 광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주는 등 후대하였다. 마침내 광문을 어느 약장사하는 부잣집에 천거하여 주었다. 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한 지 오래된 어느 날, 그 집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며 힐끔힐끔 돌아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살피고 다시 나가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에 못마땅한 눈치였다. 불일을 다 보고 돌아온 주인은 방안을 살펴보고 깜짝 놀라며 광문을 노려보고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얼굴빛을 고치고는 말이 없었다. 광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다만 묵묵히 일할 뿐 주인 눈치가 불쾌하다고 해서 무단히 그 집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이 지난 뒤 그 집주인의 처조카 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주인보고 하는 말이,

“저번에 아저씨한테 돈을 좀 취하고자 찾아 왔었는데 마침 안 계셔서 방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갔는데 아마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㉔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후회하며 광문에게 사과를 하였다.

“나는 용졸한 사람이오. 공연히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제부터는 그대를 대할 면목조차 없습니다.”

하며 아는 사람이나 친구인 부자나 또는 큰 장사꾼 그리고 종실과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광문을 행실이 옳고 바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칭찬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으레 광문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느덧 두서너 달 사이에 사대부들까지도 광문을 옛날 어진 사람처럼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에 서울 장안에서는 모두들 광문을 후대하여 그를 천거해 준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보고 또한 약장사하는 부자 역시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하였다. 돈놀이하는 사람이 전당포를 하는데 있어서 목걸이, 옷, 그릇, 그림집, 토지 및 종문서 등 물품을 담보로 영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광문은 아무런 전당을 잡히지 않고도 천금을 대부 받을 신임이 있었다.

그러나 광문은 지극히 얼굴이 못났었다. 말썹씨도 없어서 사람을 움직일만한 능력이 없고 입은 커서 주먹 둘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아주 심한 장난꾸러기여서 별별 짓을 다 하였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상대방을 서로 헐어서 말하기를

“네 형이 달문이지.”

하면 못난 것을 상징하므로 큰 욕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달문이 광문의 별명이었던 까닭이었다.

광문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옷통을 벗어젓히고 덤벼들며 무엇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옆드려서 땅에다 금을 긋고 잘잘못을 가리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온 장터 사람들은 모두 웃고, 싸우던 사람도 또한 웃으며 헤어져 버린다.

광문은 나이 사십이 넘도록 머리를 땅은 총각이었다. 사람들이 장가를 권하면,

“어여쁜 계집의 얼굴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법이요. 그러나 이것은 남자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지요. 여자도 또한 잘생긴 남자를 희망하거든요. 나는 이런 추한 얼굴을 하고서야 어찌 계집이 따르려고요.”

또 집을 장만하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 형제 처자가 없는데 집을 장만해서 무엇하오. 아침에 일어나 노래 부르며 시내에 들어가 밥을 얻어

㉕ 먹고 해가 저물면 부잣집 문턱에서 잔대도 장안 호수가 팔만인데 날마다 그 장소를 옮겨도 내 생전에 다 끝나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 박지원, 「광문자전」 -

24. 위 글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고자 한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를 꿈꾸는 이상주의자
- ② 고뇌하며 방황하는 떠돌이
- ③ 모험을 즐기는 한국판 돈키호테
- ④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양심인
- ⑤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

25. ㉔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삶의 교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필 귀정(事必歸正)
- ② 맹모 삼천(孟母三遷)
- ③ 반포 지효(反哺之孝)
- ④ 형설 지공(螢雪之功)
- ⑤ 유비 무환(有備無患)

26. ㉔에 나타난 ‘광문’의 태도와 정서가 가장 잘 형상화된 것은? [1

점]

① 오늘 아침 / 따뜻한 한 잔 술과 /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 김종길, 「설날 아침에」 -

②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 신석정, 「꽃덤불」 -

③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 아주 내어밀듯이,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④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 날이 /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 나는 밤 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 심훈, 「그 날이 오면」 -

⑤ 날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 달 빈 길에 뜨면 /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

27. 위 글과 관련하여 던질 수 있는 <보기>의 **질문**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든 예술 중에서 소설은 가장 재미있게 내가 사는 세계는 살 만한 세계인가 아닌가를 반성케 한다. 일상성 속에 매몰된 의식에 그 반성은 채찍과도 같은 역할을 맡아 한다. 이 세계는 과연 살 만한 세계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

- 김 현, 「소설은 왜 읽는가」 -

- ① 공연히 남을 불신하는 풍조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지는 않은가?
- ② 요즘 우리 사회는 내면을 다지기보다 외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 ③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며 남을 속이지 않는 신용 사회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 ④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는 강한 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 ⑤ 불우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점차 각박해지는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

28. 사건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사 건	반 응
광문이 거지 아이의 시신을 거두어 잘 묻어줌	① 광문의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지는군.
광문의 선행에 집주인이 후대함	②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구나.
약장사하는 부자가 광문에게 사과함	③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부자의 태도가 돋보여.
약장사하는 부자의 칭찬으로 광문이 큰 명성을 얻게 되고 부자 또한 칭송 받음	④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의 인품도 빛나게 하는구나.
광문이 추한 얼굴 때문에 장가들기를 사양함	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훌륭해.

[29~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구요?

㉠세인(世人)은 매화는 늙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늙은 등걸이 ㉡용의 몸뚱어리처럼 뒤틀려 올라간 곳에 성긴 가지가 군데군데 뻗고 그 위에 띄엄띄엄 몇 개씩 꽃이 피는 데 품위가 있다고 합니다.

<중략>

나는 구름같이 핀 매화 앞에 단정히 앉아 행여나 풍겨오는 ㉢암향(暗香)이 다칠세라 호흡도 가다듬어 쉬면서 격동하는 심장을 가라앉히기에 힘을 씁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곧 무슨 이야기인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매화를 대할 때의 이 경건해지는 마음이 위대한 예술을 감상할 때의 심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눈앞에 한 개의 대리석상이 떠오릅니다. 회랍에서도 유명한 피디어스의 작품인가 봅니다.

운강(雲岡)과 용문(龍門)의 거대한 석불들이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 내 눈앞에 황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여러 환영들은 사라지고 신라의 석불이 그 부드러운 곡선을 공중에 그리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세로 내 눈을 어지럽고 황홀하게 합니다.

그러다 나는 다시 희멀건 조선조의 백사기(白砂器)를 봅니다. 희미한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조금도 그의 존재를 자랑함이 없이 의젓이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수줍어하는 ㉤풀이 소리쳐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를 것 같구려. 고동(古銅)의 빛이 제아무리 곱다한들 용천요(龍泉窯)*의 품이 제아무리 높다한들 이렇게도 적막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택에 매화가 ㉥구름같이 핀 그 앞에서 나의 환상은 한없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매화와 석불과 백사기의 존재를 모조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있는 듯 만 듯한 ㉦향기가 내 코를 스치는구려. 내 옆에 선생이 막 책장을 넘기시는 줄 어찌 알았으리요.

요즈음은 턱없이 분주한 세상이올시다. 나 남 할 것 없이 몸보다는 마음이 분주한 세상이올시다.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요. 어느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선생 택에 매화가 피었다니 구경이나 갈까?” 하였더니 내 말이 맺기도 전에 그는 “자네도 꽤 한가로운 사람일세.”하고 조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찌다가 우리는 이다지도 바빠졌는가. 물에 빠져 금시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친구 인사라도 한 자였다면 건져 주었을 걸’하는 영국풍의 침착성은 못 가졌다 치더라도, 이 커피는 맛이 좋으니 언짢으니 이 그림은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하는 터에 빙설을 견뎌내고 피어난 애련한 매화를 완상(玩賞)**할 여유조차 없는 이다지도 냉회(冷灰)***같이 식어 버린 우리네 마음이리까?

- 김용준, 「매화」 -

* 용천요 : 중국의 용천 가마에서 구운 도자기

** 완상 : 즐겨 구경함

*** 냉회 : 불이 꺼져서 싸늘하게 식은 재

(나)

- 압개예* 안개 짓고 뿔피희 비친다
떠라 떠라
- ㉠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온다.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江강村촌 온간 고지 먼 비치 더욱 도타
- 우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 ㉡ 漁어村촌 두어 집이 속의 나락들락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말가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 다
- 년납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 靑靑蕪약笠笠은 씨 잇노라, 綠綠蕪사衣의 가져오나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無무心심 白백鷗구 내 좇 가 제 좇 가
- 物물外외예 조 일이 漁어父부生生涯에 아니러나
떠라 떠라
- ㉣ 漁어翁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四 時시興흥이 가지나 秋秋江강이 음듬이라
- 구름 거든 후의 빈치 두텁거다
떠라 떠라
- ㉤ 天天地地閉폐塞塞색호 바다흔 依의舊舊구 다
至지芻국窓총 至지芻국窓총 於어思사臥와
업슨 물결이 김편 여 잇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압개예 : 앞 갯벌에

29. (가), (나)의 공통적인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삶을 반성적으로 보고 있다.
- ②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③ 현실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 ④ 자연과 더불어 풍류와 멋을 즐기고자 한다.
- ⑤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이를 개혁하고자 한다.

30. ㉠과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보 기> —
그가 우리를 도와 준 일을 잊지 맙시다.

- ① ㉠의 안긴 문장은 서술절의 구실을 한다.
- ② <보기>의 안긴 문장은 부사절 구실을 한다.
- ③ ㉠의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의 주어는 같다.
- ④ <보기>의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의 주어는 다르다.
- ⑤ <보기>의 안긴 문장은 '주어+보어+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31. ㉠~㉢ 중, '매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1점]

- ① 풀을 팔아 생계를 이어 간다.
- ② 옷을 새로 샀는데, 풀이 맞지 않아 바꾸고 싶어.
- ③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의 풀으로 돌아왔다.
- ④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엄마 풀으로 뛰어 들었다.
- ⑤ 새침하게 서 있는 풀이 아무래도 단단히 토라진 것 같아.

33. 윤선도의 문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부사시사」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한다. 책자에 수록될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의성어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청각과 시각적 심상의 조화가 잘 나타나 있다.
- ③ ㉢ : 소박한 삶의 모습과 물아일체의 경지가 나타나 있다.
- ④ ㉣ : 자연 속에 묻혀 있지만 속세를 걱정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⑤ ㉤ :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비단을 펼친 듯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34. (가)의 ㉢과 (나)의 시적 화자가 <보기>의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시간 단축이 바로 생산성 향상이다.
• 빠른 서비스가 고객을 만족시킨다.
• 경쟁자보다 빨라야 선점 효과가 있다.

- ① 친구 :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활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② 시적 화자 : 하지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닐세. 삶에도 여유가 필요하대네.
- ③ 친구 : 그러나 한가롭게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행동이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 ④ 시적 화자 : 그런 조급증이 사회를 각박하게 한다네. 자연 속에 묻혀 속세를 잊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네.
- ⑤ 친구 : 사실 저도 가끔 차를 마시고 그림을 보며 여유를 가져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느긋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수를 10만 개로 추정했다. 인간 DNA보다 1,600배나 작은 DNA를 가진 미생물이 1,7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간처럼 고등 생물의 기능을 가지려면 유전자 수가 적어도 10만 개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 국제 컨소시엄은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밝혔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 수는 겨우 3만~4만 개라고 발표하였다. 그 후 더욱 정밀한 연구를 거쳐 인간의 유전자 수는 2만~2만 5천 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식물인 애기 장대와 비슷하고 선충이나 초파리보다 겨우 몇 백 개에서 몇 천 개가 많은 데 불과하다. 즉 인간의 유전자 수는 다른 생물체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사실 인간이 우월하다는 관점은 생명 현상에서만 본다면 적절하지 않다. 후각이나 힘, 추위에 견디는 능력 등 특정 능력 면에서 인간은 여타의 생물체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력과 아이디어, 문화 등에서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타의 생물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인간이 유전자 수에서는 왜 다른 생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인간의 유전자는 ‘슈퍼 유전자’라는 견해가 있다. 인간의 유전자는 다른 생물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뛰어난 기능, 더 새로운 기능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스타베 파보 박사 연구팀은 인간과 침팬지의 기억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인간 유전자의 기억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이 침팬지의 그러한 능력보다 두 배나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 차이가 인간과 침팬지의 기억 능력에 대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유전자 수는 선충, 초파리 등과 비슷하지만, 만들어진 단백질은 다른 생물의 단백질과는 달리,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유전자는 축구 선수로 치면 공격, 수비, 허리를 가리지 않는 ‘멀티 플레이어’라는 것이다.

또 인간의 단백질은 여러 개의 작은 단백질이 조합을 이루어 어떤 일을 하는 ‘팀 플레이’ 형태 즉, 다른 하등 생물에 비해 훨씬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형태로 협력하도록 진화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선충에는 하나의 거대한 단백질이 특정한 하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축구로 말한다면 뛰어난 개인기를 가진 스타가 혼자 경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단백질은 여러 개의 작은 단백질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인간의 DNA에 있는 유전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DNA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와 ㉡다중 역할, 단백질들이 만드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다른 생물에 비해 월등히 뛰어남으로써 인간을 우월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초파리의 유전자 수는 인간의 유전자 수와 같다.
- ② 인간에 비해 하등 생물의 단백질은 분업화되어 있다.
- ③ 생명 현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모든 동물의 영장임이 밝혀졌다.
- ④ 유전자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인간과 선충의 유전자 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놀랐다.
- ⑤ 게놈 연구 초기에 과학자들은 고등 생물의 유전자 수가 하등 생물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6.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진화
- ② 인간의 창의성
- ③ 인간 유전자의 특성
- ④ 인간의 단백질 형성 과정
- ⑤ 인간과 초파리 유전자의 차이점

37. 진술 방법이 ㉠과 유사한 것은? [1점]

- ① 인생은 마라톤이다.
- ② 인간은 이성을 지닌 동물이다.
- ③ 전통 놀이에는 차전놀이, 연 날리기 등이 있다.
- ④ 문화재는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로 나뉜다.
- ⑤ 이기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반면, 이타주의는 타인의 행복을 중시한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단백질은 서로 유사해서 동시에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 ② A라는 단백질은 인간의 몸 안에서 다른 생물과 같이 독립적 기능을 담당한다.
- ③ A라는 단백질은 뇌에서 기억의 기능을, B라는 단백질은 수리 기능을 담당한다.
- ④ 청각과 관련된 A라는 단백질은 B라는 단백질을 만나도 청각 기능을 그대로 담당한다.
- ⑤ A라는 단백질이 보통 생물에서는 소화에만 쓰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소화와 식욕 촉진 기능까지 담당한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퓨전 음식, 퓨전 의상, 퓨전 가구, 퓨전 음악, 퓨전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퓨전(fusion)’이 요즘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말은 라틴어의 ‘fuse(섞다)’에서 기원한 것으로 우리말로로는 융합, 융해, 연합, 합병, 제휴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초기 간단한 음식의 새로운 결합, 일상 용품의 동·서 결합, 주거와 의상의 동·서 결합 등 좁은 의미의 융합으로부터 출발한 퓨전은 이제 사회 문화 전반과 과학 기술 전반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인류는 문화나 과학 기술 등에서 퓨전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발달시켜왔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데는 용기와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한다. 현대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창조성과 무한한 도전 정신은 이러한 퓨전을 더욱 발달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과학 기술에서의 퓨전은 미래 사회 발전의 핵심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

퓨전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거나 단순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과학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과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미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 기술(IT), 바이오 기술(BT), 나노 기술(NT) 등이 퓨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이들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공학 기술의 발전을 유발하면서** 관련 산업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체의 미세 혈관 관찰이 가능한 초소형 의학 로봇, 바이러스를 이용한 나노칩, 전자코 등의 최첨단 공학은 정보 기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등이 **㉢퓨전을 통해 이루어 낼** 꿈의 세계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퓨전이 각 방면 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퓨전을 통한 과학 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 사회학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퓨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주역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름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퓨전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퓨전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과학 기술과 문화가 기존의 것보다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일 때 사회 발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과학 기술에 대해 서로의 경계를 뛰어넘는 퓨전으로 **㉣제3의 과학 기술, 새로운 과학 기술을 창조해 내야** 한다. 기존의 과학 기술이 한 국가나 사회 등 제한된 영역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면 퓨전은 **㉤전 세계적, 범인류적 영역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퓨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함께 언급되는 것이 ‘시너지 효과’이다.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는 원래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가 힘을 합쳐 둘이 지닌 힘 이상의 효과를 내는 현상으로, 상승 효과라 할 수 있다. 단순히 하나 더하기 하나의 문화 융합 현상, 과학 기술의 접맥만이 아니라, 둘 이상의 문화 또는 기술이 합쳐지면서 전 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신문화, 신과학 기술이 창조되는 것이다. 퓨전을 통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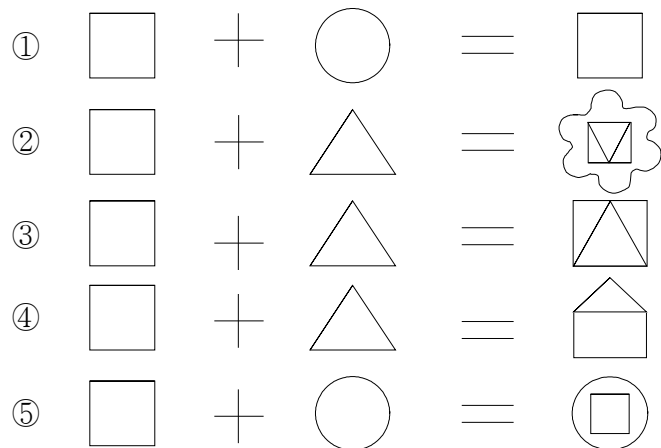
과학 기술의 발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신문명을 창조하게 되므로 **㉥미래 경쟁 사회에서의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과학 기술을 서로 융합하고 산업과 산업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상호 융합하여 제3의 산업을 창조하며, 기업도 국경과 업종을 초월하여 퓨전을 통한 시너지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 특히 퓨전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시너지 효과에 의하면 1+1=4가 될 수도 있다.
- ② 퓨전은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 ③ 퓨전은 현대인의 정신적 특성과 맞물려 더욱 활성화되었다.
- ④ 퓨전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문화된 특정 영역끼리 결합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 ⑤ 미래 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퓨전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40. ㉦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41. 위 글에 공감한 <보기>의 ‘기업가’가 ‘상인’을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어느 기업가가 CD를 사러 갔다. CD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CD 플레이어를 함께 판다면 CD 판매량과 CD 플레이어 판매량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크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자, 상인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았다.

- ① 우물 안 개구리 격
- ② 가랑비에 옷 젖는 격
- ③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 ④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격
- ⑤ 내 배가 부르면 종놈 배고픈 줄 모르는 격

42. 필자가 ‘과학 기술에서의 퓨전’을 특히 강조하는 근본적 이유는?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득이네 때문에 일본 깃대와 출정 군인의 집이라는 깃발이 만장처럼 처량히 휘날리고, 그 집 사랑에서 며칠씩 술판이 벌어져도 밀주 단속에도 안 걸리고 …… . 그렇게 그까짓 열흘 눈 깜박할 새가 지나가 만득이는 마침내 입영을 하게 됐다. 만득이가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곱단이를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곱단이가 판 데 시집 갈 아이도 아니거니와 식구들 역시 판 데 시집 보낼 엄두라도 낼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설득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그럴 것이면 왜 혼사를 치르고 나서 떠나면 안 되냐는 곱단이의 지당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곱단이는 이름처럼 마음씨도 비단결 같은 처녀였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굽힐 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았으니까. ㉠사위스러워서 아무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가 사지(死地)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곱단이를 과부 안 만들려는 그의 깊은 마음을 내심 여간 대견히 여기는 게 아니었다. 만득이와 곱단이는 요셋말로 하면 마을의 마스코트라고나 할까. 둘 다 행복해지지 않으면 재앙이라도 내릴 것처럼 지켜 주고 싶어했고, 만득이의 처사는 그런 소박한 인심에도 거슬리지 않는 최선의 것이었다.

(나) 만득이가 떠난 후에도 마을 청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가 마을에 남자라고는 중늬은이 이상만 남게 되었다. 곱단이 오빠들도 도시로 나가 공장에 취직한 셋째 오빠와 부모님을 모시는 큰오빠 빼고 두 오빠가 징용으로 나가 아들 부잣집이 ㉡허락해졌다. 장정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양식 공출도 극악해져 그 풍요하던 마을도 앞으로 넘길 보릿고개 걱정이 태산 같았다. 곳은 날 부침질만 해도 서로 나누느라 한 채반은 부쳐야 했던 인심도 스스로 금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주 나쁜 소식이 염병보다 더 흉흉하고 걸잡을 수 없이 온 동네를 휩쓸었다. 전에도 여자 정신대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본토나 남양군도에 가서 일하고 싶은 처녀들은 지원하면 보내 주고 나중에 집에 송금도 할 수 있다는 면사무소의 공문이 한바탕 돈 후였지만 그럴 생각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고, 설마 돈벌이를 강제로 보내리라고는 아무도 짐작을 못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은 그게 아니어서 몇 사람씩 배당을 받은 면사무소 노무과 서기들과 순사들이 ㉢과년(瓜年)한 딸 가진 집을 위협도 하고 다짜고짜 끌여가는 일까지 있다고 했다.

(다) 설마설마 하는 사이에 더 나쁜 일이 생겼다. 그건 같은 면 내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소문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 동구 밖에서 감춰 놓은 곡식을 뒤지려고 나타난 면서기와 순사를 보고 정신대를 뺏으러 오는 줄 지레짐작을 한 부모가 딸애를 헛간 짚더미 속에 숨겼다고 했다. 공출 독려 받들은 날카로운 창이 달린 장대로 곡식을 숨겨 두었음직한

곳이면 닥치는 대로 찢러보는 게 상례였다. 헛간에 짚가리로 창을 들이대는 것과 그 부모네들이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른 것은 거의 동시였다. 창 끝에 처녀의 살점이 묻어나왔다고도 하고, 꿰진 창자가 묻어 나왔다고도 하고, 처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도 하고, 피를 많이 흘리면서 달구지로 읍내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도 했다. 아무튼 그 소문의 파문은 온 면내의 딸 가진 집을 주야로 ㉣가위놀리게 했다. 끔찍한 일이었다.

(라) 도시에서 군수 공장에 다니는 곱단이 오빠가 종아리에 각반을 차고 징 달린 구두를 신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신의주에 있는 중요한 공사관에서 측량 기사로 있는, 한 번 장가 갔던 남자라고 했다. 곱단이 부모로부터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급하게 구해 온 곱단이 신랑감이었다. 첫장가 든 부인이 십 년이 가깝도록 아이를 못 낳아 내치고, 새 장가를 든다는 그는 곱단이의 그 고운 얼굴보다는 별로 크지 않은 엉덩이만 유심히 보면서, 글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연방 고개를 가우똥, 그닥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 총각이 씨가 마른 시대였다. 게다가 지금 그 늙은 신랑감이 하고 있는 일은 군사적인 중요한 일이라 징용은 절로 면제된다고 한다. 곱단이네는 그 고운 딸을 번갯불에 콩 귀 먹듯이 그 재취 자리로 보내 버렸다.

(마) 곱단이가 어떤 심정으로 그 혼사에 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피를 보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회까닥해진다고 하지 않는가. 피 묻은 소문도 마찬가지로였다. 곱단이네 식구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만득이와 곱단이의 연애를 어여삐 여기고, 스스로 증인이 된 마을 어른들도 이제 곱단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일본군한테 내주지 않는 일뿐이었다.

더군다나 곱단이 어머니는 피가 무서워 닭모가지 하나 못 비트는 착하디착한 위인이었다. 그 피 묻은 소문에 살이 떨려 ㉤우두망찰했을 것이다. 곱단이는 만득이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판 데로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도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을 만큼 모질지는 못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넋을 놓아버리는 게 고작이었을 것이다.

곱단이네서 혼사를 치르고 사흘 만에 신랑을 따라 집을 떠나는 곱단이는 사자(死者)를 분단장해 놓은 것처럼 섬뜩하니 표정이라곤 없었다.

- 박완서, 「그 여자네 집」 -

4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만득이가 곱단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서술자의 추측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나) :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휘, 지명, 역사적 사실 등을 제시함으로써 허구적 내용에 사실성을 더하고 있다.
- ③ (다) :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서술자의 목소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④ (라) : 곱단이네가 서둘러 곱단이를 중년 남자와 결혼시키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당대 물질 만능의 비정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⑤ (마) : 외양 묘사를 통해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4.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불길하고 꺼림칙해서
- ② ㉡ - 아들 수가 확 줄었다.
- ③ ㉢ - 혼기에 채 이르지 못한
- ④ ㉣ - 꿈쩍 못하여 답답하고 불안하게
- ⑤ ㉣ - 녀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45. ㉠을 <보기>와 같이 바꾸었을 때, 표현상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한다냐……. 동구 밖에서 끔찍한 일도 생겼다는데…….”
 “그래도, 어머니. 저는 만득 씨를 더 기다려 보렵니다.”
 “아니, 이것아. 그런 소문을 듣고도 끝까지 만득이를 기다린다고?”
 “그래도…….”
 “그래. 나도 널 저 측량기산지 뭘지 하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지는 않다만…….”
 “…….”

- ①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 현장성과 구체성을 확보한다.
- ② 서술자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다.
- ③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긴박성을 부여한다.
- ④ 인물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등장 인물의 성격 파악이 쉬워진다.
- ⑤ 사건을 극적으로 제시하여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46.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할 때,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만득이는 결혼을 하고 입대하라는 곱단이의 애절한 하소연에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변민하는 표정을 짓도록 해야겠어.
- ② (나)에서는 마을의 조명을 좀 어둡게 하여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만들어야겠어.
- ③ (다)의 소문 내용은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수군대는 장면을 통해 드러내도록 해야겠어.
- ④ (라)에서 중년 남자는 거만한 태도로 곱단이네 식구들을 대하도록 해야겠어.
- ⑤ (마)의 곱단이가 시집가는 장면에서는 곱단이와 마을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연기하도록 해야겠어.

47.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잊혀져가는 전통적 생활 방식들을 보여주어 전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② 일제 강점하에서 각 개개인이 겪은 아픔을 통해 민족적 수난의 비극을 인식하게 한다.
- ③ 상황은 달라도 연인을 잃은 애타는 심정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운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어 지고지순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④ 한 집안의 고난과 혼란의 역사를 통해 끈질긴 민중의 생명력을 중시해야 함과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대처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 ⑤ 다양하게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대인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다.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재나 표현 분위기로 보아 한국화처럼 보이는 서양화가 있는가 하면 서양화처럼 보이는 한국화도 있다. 박수근의 <소와 유동(遊童)>은 우리 주변에 있는 토속적 소재를 다룬, 한국적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그림이다. 우리 전통과 친근한 바지 저고리를 입은 농촌 아이들과 소를 소재로 했지만, 이 그림을 한국화라 하지 않고 작자 박수근을 한국화 화가라고도 부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화와 서양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체로 먼저 재료와 용구에 의해 구분한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동양의 전통적 재료를 썼으면 한국화이고, 그 외에 서양 회화의 재료를 썼으면 모두 서양화로 보는 것이다. 미술은 정신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재료와 용구의 물질적 제한을 받는다. 한국화와 서양화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양식에 따른 것이나 이 양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관여한 요소가 바로 재료와 용구이다. 따라서 사용한 재료와 용구가 무엇이나에 따라 한국화, 서양화가 구분된다.

한국화는 전통적 재료와 용구로서 우선 화선지 또는 비단과 먹을 사용하고, 붓은 끝이 뾰족한 전통적 모필(毛筆)을 쓰며, 물감은 아교를 고착제로 사용한 물감을 쓴다. 만약 한지와 먹을 사용하지 않고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렸다면, 아무리 한국화 양식을 흉내내서 그렸다 하더라도 한국화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 작화 재료인 먹과 한지, 한국화 물감을 사용해 표현했다면 거의 대부분 한국화로 취급한다. 거기다 작품 주제와 소재가 한국적이거나, 필법(筆法), 화법(畫法) 등에서 한국에서만 써 오던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더욱 명확하게 한국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회화에서는 이렇게 재료와 용구만으로 한국화와 서양화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그리는 재료가 다양해지고 그리는 방법이 수없이 분화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어떤 것이 한국화이고 어떤 것이 서양화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단지 가정을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는 ㉠이러한 작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때는 관습적으로 행해 오던 ‘재료, 용구에 의한 분류’가 무의미해진다.

이런 경우 굳이 한국화나 서양화나 장르 구분을 해야 한다면, 이때는 작자 본인의 의도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 어떤 양식을 주로 그리는 화가인가, 또 작자 자신이 어떤 양식을 염두에 두고 작품 제작을 했는가, 작자 자신이 어떤 양식으로 분류하고 싶은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한국화 화가가 도화지에 먹이나 물감으로 풍경을 그렸더라도, 화가 자신이 전통적 산수를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의도했다면 그것은 한국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화가가 자기 그림을 한국화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화가 우리의 전통적 회화 양식이기 때문에 전통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화라는 회화 양식은 전통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명시해 둔 것은 없지만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은연중에 형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재

료, 용구, 소재, 기법, 그리고 예술관에 있어서의 약속이다. 이런 것에서 한국화의 유전인자를 찾아 그것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이들 모두를 충족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한국화이지만, 이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한국적이라야 한국화일 수 있다.

48.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는가? [1점]

- ① 한국화란 무엇인가?
- ② 한국화의 전통은 무엇인가?
- ③ 한국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④ 한국화와 서양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⑤ 한국화에 끼친 서양화의 영향은 무엇인가?

49.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 ① 윤아 : 토속적인 소재와 한국적인 정서만으로 한국화라 규정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 ② 다연 : 그래, 한국화를 그리는 데는 전통적인 재료와 용구가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국화라고 부를 수 없지.
- ③ 정호 : 요즘처럼 재료와 용구가 다양한 시대에는 화가의 의도도 중요한 것 같아.
- ④ 안나 : 하지만 화가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감상자가 그림을 어떤 양식으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해.
- ⑤ 태원 : 결국 한국화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는 은연중에 형성된 기본적인 어떤 약속이 있어야 해.

5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캔버스에 먹으로 전통 산수를 그린 작품
- ② 화선지에 4B 연필로 사과 정물을 그린 작품
- ③ 합판에 전통 한지를 찢어 붙여서 표현한 작품
- ④ 도화지에 수채 물감으로 자연 풍경을 그린 작품
- ⑤ 비단에 먹물을 얹지르고 신체 부위를 이용해 그린 작품

51. 위 글을 읽고 심화.발전 과제를 설정할 때,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 기>

ㄱ. 한국화의 기본 재료와 용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ㄴ. 서양화처럼 보이는 한국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알아보자.
 ㄷ. 한국화라고 규정하는 데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ㄹ. 한국화의 소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기법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제작자가 시청자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는 극단적 평가가 공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극단에서는 시청자가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은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흔히 이런 주장을 펼치고는 한다. ㉠그들은 높은 시청률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시청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 반면 ㉡다른 극단에서는 시청자가 방송사의 뒷에 걸린 존재이며 합리적인 판단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사회적 의미도 지니지 않고 있는 가벼운 오락 프로그램의 강세,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낮은 시청률이 그들이 제시한 근거들이다.

시청자들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쉽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양 극단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는 식의 애매한 절충주의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시청자의 수준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요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편성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선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시청자들의 욕구라는 개념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청자들은 결코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 시청자 가운데는 계급과 성뿐 아니라 학력과 연령, 취향 면에서 다양한 층이 존재한다. 그리고 시청자의 수준이 이들 모든 시청자들의 수준을 단순히 평균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텔레비전은 대중 매체이고 따라서 많은 시청자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에 더 많이 편성된 ㉣특정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전반적 수준을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이 사회 성원들의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오락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은 텔레비전의 일상적 성격과 결합되어 텔레비전을 더욱 가볍게 만드는 데 공헌한다. 이처럼 많은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가벼운 오락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들이 택하는 수단의 수준을 근거로 전반적인 시청자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평소에는 근엄한 사람이라도 여흥을 즐길 때에는 가벼운 오락 수단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 텔레비전의 수준이 반드시 시청자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텔레비전의 수준이 낮다면 그것은 텔레비전이 하층 오락의 도구로만 취급되는 현재의 상황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말이다.

52. 위 글의 내용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검증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둘을 절충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 ④ 여러 특수한 사례를 나열한 다음, 보편적 이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대립적 견해를 소개한 뒤, 대상을 판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53. ㉠이 ㉡을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의 위세를 업고 호가 호위(狐假虎威)하고 있군.
- ②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 소탐 대실(小貪大失)의 잘못을 범하고 있군.
- ③ 아전 인수(我田引水)격으로 시청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있어.
- ④ 높은 곳에 오를수록 겸손해야 하는 등고 자비(登高自卑)의 자세를 지녀야겠어.
- ⑤ 제작자와 시청자는 떨어질 수 없는 수어 지교(水魚之交)의 관계임을 알아야겠어.

54.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시청자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은 여러 프로그램에 중복 출연하고 있다.
- ② 방송국 홈페이지에 시청자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 ③ 시청자가 참여하여 내용 전체를 이끌어 가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 ④ 지방 방송국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 ⑤ 모 방송사는 시청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 드라마'를 시청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마쳤다.

55. ㉣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할 때, 위 글의 글쓴이가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일보

성별 순위	성인 남성	성인 여성
1	특별 드라마(역사 관련)	특별 드라마(애정 관련)
2	대하 드라마(역사 관련)	주말 연속극
3	일일 ○○연속극	오락(코미디)
4	오락(코미디)	일일 ○○연속극
5	스포츠	대하 드라마(문학 관련)
⋮	⋮	⋮
15	시사 토론	자연 다큐멘터리

- ① 방송사는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겠군.
- ②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역사에 관심이 많군.
- ③ 여성은 전반적으로 일상적 소재의 드라마를 좋아하는군.
- ④ 시청자들은 특별 드라마를 주로 보며, 성별에 따른 관심사가 다르군.
- ⑤ 드라마가 모두에게 인기가 높지만 이것으로 시청자의 수준을 가늠하기는 힘들군.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사 소통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 전달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음성 언어가 사용되고, 동작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어떤 경우에는 음성 언어의 대체로서 동작 언어가 사용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의사 소통 시 동작 언어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65%~70%에 해당되고, 음성 언어는 약 30%~35%의 정보만을 전달한다는 버드휘스텔(Birdwhistell)의 연구를 통해 ㉠보다라도, 대화에서 동작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작 언어 안에 감싸여 있는 것이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동작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선천적인 것인지,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인지, 유전적으로 전이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습득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었다. 아이들이 빠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각이나 시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웃는 것은 모방이나 학습과는 관계가 없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유전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걸 옷을 입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오른팔을 먼저 끼우는 데 반해 여성들은 왼팔을 먼저 끼운다. 복잡한 거리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지나쳐 갈 때, 남성은 여성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데 반해, 여성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린다.

기본적인 동작 언어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습득된 동작 언어도 많이 있다. 동작 언어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능적 동작 언어라고 한다. 이런 언어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포나 분노에 찬 표정이나 심한 고통을 받을 때 내는 비명 소리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음성 언어가 음성을 매개로 한다면, 몸짓을 매개로 하여 기호로 사용되는 동작 언어를 기호적 동작 언어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음성 언어와 가장 가까운 것도 기호적 동작 언어이다. 본능적 동작 언어가 선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면, 기호적 동작 언어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이 사회적인 약속으로 기호화되어 있는 것을 문화적 모방에 의해 배운 것이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고, 서로 학습하여 공유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배워서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음성 언어와 함께 쓰이면서 기능상으로 그것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것을 주변 언어적 동작 언어라고 한다. 이 가운데는 음성적인 요소와 동작적인 요소가 있다.

음성적인 요소란 음성 언어에 꼭 필요한 소리의 세기, 높이, 크기, 빠르기보다 더 과장되게 세거나, 높거나, 크거나, 빠르게 사용되어서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음성적 요소들을 말한다.

동작적인 요소에는 음성 언어에 수반되는 얼굴 표정이나 손짓, 행동 등이 포함된다. 똑같이 동작적인 주변 언어적 요소이지만, 손짓보다는 얼굴 표정이 음성 언어의 의미 내용을 바꾸는 데에 더 자주 사용된다.

5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기본적인 동작 언어는 후천적인 것이다.
- ② 정보 전달을 위해서 1차적으로 동작 언어가 사용된다.
- ③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음성 언어가 동작 언어보다 많다.
- ④ 기호적 동작 언어는 본능적 동작 언어보다 음성 언어에 가깝다.
- ⑤ 청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웃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다.

57. ㉠의 문맥적 의미로 알맞은 것은? [1점]

보다□□ ① 사물의 모양을 눈을 통하여 알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 ② 알려고 두루 살피다. ¶어느 모로 보아도 그는 장군감이다. ③ 눈으로 즐기거나 감상하다. ¶연극을 ~./텔레비전을~. ④ 보살피어 지키다. 돌보다. ¶아이를 ~. ⑤ 일을 맡아서 하거나 처리하다. ¶사무를 ~.

58. 의미 관계가 ㉣ : ㉤과 유사한 것은? [1점]

- ① 사람 : 동물
- ② 고통 : 비명
- ③ 음성 : 몸짓
- ④ 선천 : 후천
- ⑤ 학습 : 모방

59. ‘동작 언어’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동작 언어는 의사 소통을 보완하고 강화해 준다.
- ② 동작 언어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③ 동작 언어는 음성 언어에 비해 그 표현 방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전달력도 크다.
- ④ 음성 언어가 청각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하는 데 비해, 동작 언어는 시각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한다.
- ⑤ 음성 언어가 다분히 무의식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성격이 강한 데 비해, 동작 언어는 문화적이고 지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60. 기호적 동작 언어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을 숨길 때 하는 눈짓
- ② 강하게 부정할 때 하는 손사래
- ③ 칼에 베였을 때 지르는 외마디 소리
- ④ 껌연쩍었을 때 하는 뒷머리 긁적이기
- ⑤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악수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